

2012년 4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

일시 : 2012.4.26(목)

주요 발언 내용

▲ 총선 보도 전반적으로 좋았음

△ 긍정적 평가

- 총선 방송에서 전문가 분석과 그래픽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 (임상혁 위원)
- 지상파에서 부족한 정보인 개표소 현장 상황을 보여준 점에 대해 긍정적 평가 (차경애 위원)
- 뉴스Y 타이틀은 '선택 4·11'이었고 타사는 '2012총선'이었는데 총선 타이틀 선정에 긍정적 평가 (한박무 위원)
- 초청 인사들의 지명도는 떨어지지만 방송 3사에서 제공되지 않는 다른 정치적 해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긍정적 평가 (김경모 위원)

△ 보완 필요

- 지상파 3사는 개표방송을 하고 뉴스Y는 전문가 분석이 주를 이뤄서 다소 지루했음. 자막 크기 등 개선 필요 (임상혁 위원, 차경애 위원) (회사 측 답변 : 자막이 심플하고 작은 것은 젊은 층이 좋아하고 연령층이 높을수록 크고 정돈된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조사. 차별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 모색 중)
- 경쟁사 개표방송은 지상파 3사 자료 인용이라는 것을 함께 노출하며 뉴스Y보다 빨라 (임상혁 위원, 한박무 위원)
- 개표방송하면서 초청 인사를 통한 대담 내용은 좋으나 내용에 비해 인사의 지명도나 중량감 떨어져 (김정연 위원, 김경모 위원)
- 전화 대담 통화 중에 앵커의 추임새가 없어서 통화가 연결되어 있는지 후보가 재차 확인하게 되어 거슬렸음 (김정연 위원)
- 선거 유세지역 한 정당 후보만 유세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 (차경애 위원)
- 뉴스Y는 특보 대신 '긴급'이라고 표현하고 있음. '특보'인지 '긴급'인지 적당한 단어 사용해야 (한박무 위원)
- 개표방송은 6시~12시까지 흐름이 있으니 스토리텔링을 미리 짜서 평론가와 대담해야. 초청자나 대담주제를 미리 방송중 안내해 시청자 잡아야 (김경모 위원)
- 애프터 서비스도 필요. 출구조사의 핵심은 판세 분석도 중요하지만, 정치적 의미를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중요. 총선에 이은 대선 분석도 필요 (박영상 위원장, 김경모 위원)
- 뉴스Y의 장점인 해외특파원들을 활용, 외국에서는 어떻게 한국 선거의 의미를 해

- 석하고 있는지의 현지 주요 언론들의 반응을 보도, 현지의 시각을 통한 국제적인 AS도 필요 (김경모 위원)
-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60개국 선거를 진행하는 세계적인 선거의 해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(김경모 위원)
- 청년당, 녹색당 등 소수 정당들에 대한 보도 보완 필요 (이석구 위원)
- 김형태, 문대성 논문 표절 사건 등 사실관계보다는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. 민간인 불법 사찰과 김용민 막말 사건을 같은 선상에서 보도하는 것도 안 맞아 (박영상 위원장, 이석구 위원)
- 선거 보도에서 오차범위 내에서의 선부른 분석은 옳지 않음 (박영상 위원장)

▲ 뉴스Y 홍보 신경써야

- 뉴스Y 로고 컬러를 계절에 따라 바꾸는 방안은 어떤지 (홍승용 위원)
- 뉴스Y도 지하철 등 외부 홍보 필요 (임상혁 위원)
- 회사 차원의 슬로건 준비가 필요. 사회 전반을 주도하는 슬로건 등(임상혁 위원)

▲ 뉴스 보도의 깊이 감 신경 써야

- 기획 뉴스는 주간, 월간으로 기획될 필요. 5월 여수 엑스포 행사 등 큰 행사에 대한 스팟이 아닌 인덱스로 기획 뉴스를 다뤄야 (홍승용 위원)
- 학교 폭력, 영유아 5세 누리과정, 주 5일 수업 문제, 고졸 취업 문제, 맞벌이 문제, 유치원 연결 문제 등 핫 이슈를 다룸으로써 학부모 등 어머니 층을 타겟으로 끌어 들어야 (홍승용 위원)
- 런던 올림픽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스포츠 비인기 종목에도 조명을 해서 타 채널과 차별화해야 (최종준 위원)
- 북한 미사일 발사 자체보다는 몰고 올 파급 효과, 동북아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사전 취재 돼야 (박영상 위원장)
- 카이스트 학생의 투신자살과 관련하여 내용도 부실하고 보도가 늦은 듯. 속보 강화해야 (김정연 위원)
- 전문가 섭외 신중할 필요. 'Y초대석'에서 범죄 심리 관련하여 경찰대 표창원 교수, 김부겸 의원 등이 나와 좋았으나 이후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수석 통역자의 출연은 적절치 않아 보여 (차경애 위원)

▲ 화면 구성 및 자막 처리 개선해야

- 화면구성이 가독성이 높아야 하고 개표 방송은 장시간 시청이기에 피로감을 덜기 위한 색상, 디자인 등을 감안해야 (박영상 위원장, 한박무 위원)
- 오른쪽 상단 자막에 연합뉴스TV 로고가 화면 가운데로 많이 치우쳐 날씨, 시간, 연합뉴스TV로고, 라이브 표시, 4.11총선 타이틀 등이 너무 복잡해 개선 필요 (임상혁 위원)

▲ 프로그램 제작 개선해야

- 트리맵 뉴스, 홈페이지 우측 중단 키워드 클라우드 등은 유용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필요한 것인지. (박영상 위원장, 김경모 위원)
- 6시 교통, 날씨에서 아나운서를 정면이 아닌 위에서 촬영하고 있음. 사람이 눌러서 보이는 경향이 있어 시정 필요 (차경애 위원)
- 글로벌 뉴스는 특파원들이 현장감 있는 뉴스를 보내줘서 좋으나 음질이나 화면이 가끔 끊기는 현상이 보이고 있어 시정돼야 (차경애 위원)
- 6시 뉴스 교통 정보는 수도권 중심으로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 (박영상 위원장)
- 마켓워치에 배경음악이 너무 커서 멘트가 잘 안 들림. 시정 필요 (김경모 위원)
- 현 자막뉴스 시간은 특정 시간대에 편중돼 있는데 다양한 시간대에 제공해 청각 장애인들을 고려할 필요 (이석구 위원)

▲ 기타 긍정적인 평가

- KTX는 뉴스Y 영상이 잘 뜨고 있어 홍보 측면에서 좋아 (홍승용 위원)
- 행정상회의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이슈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음 (박영상 위원장)
- 탈북자 관련 이슈가 발생 했을 때 박선영 의원과 전화 인터뷰는 시기적으로 잘 맞았음 (차경애 위원)
- 광화문 현판 표기 공청회를 다뤄서 좋았음 (차경애 위원)
- '대한민국 외교비사'는 기획이 좋아. 연합뉴스 사진을 외교비사에 적극 활용하면 더 좋을 것이라 생각 (김정연 위원)
- 4월 22일 와이초대석에서 앵커와 김부겸 의원 대담 진행이 좋았음. 앵커들도 계속해서 노력해서 기량을 향상 시켜야 (김정연 위원) (끝).